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Marital Instability of Wives Who Experienced Abuse from Their Husbands*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 정혜정

Division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yejeong Chung

◀ 목 차 ▶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 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personal resources,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with marital instability of wives who experienced physical and/or psychological abuse from their husbands, and to analyze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related variables on marital instabilit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500 wives residing in Chonbuk-do province, and data from 306 wives who reported to be psychologically and/or physically abused during last three year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e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marital instability according to wives' employment status, number of children, and occupational status of husbands. Correlational analyses indicated that wives' economic dependence, all individual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ree relational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arital instability of abused wives. Finall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marital comparison level and degree of abuse from husband were the most powerful predictors on marital instability, and all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61% of the total variance of abused wives' marital instability.

주제어(Key Words): 아내학대(wife abuse), 가정폭력(family violence), 결혼불안정성(marital instability), 비교수준(comparison level)

* 이 연구는 2000년도 전북대학교 지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적 학대를 포함하는 아내학대는 가정폭력의 여러 형태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 아내학대의 심각성은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가정폭력 사범으로 신고된 건수의 84.5%가 남편의 아내학대로서 가정폭력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아내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중앙일보, 2002, 2). 실제 조사에서도 결혼기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기혼여성의 거의 과반수에 이른다(최규련,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대략 30%의 부부들이 결혼생활동안 폭력을 경험하며, 매년 약 1500여명의 여성들이 배우자 학대로 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Rusbult & Martz, 1995).

학대받는 아내들은 특징적으로 낮은 자존감, 무기력감, 우울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광일, 1988; Johnson & Ferraro, 2000). 뿐만 아니라 아내학대는 결혼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며, 가족관계의 붕괴 또는 가족해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배우자 학대는 헌법에 명시된 법적 이혼사유로서 배우자나 존속으로부터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원인으로 제기된 이혼이 1980년 8.0%에서 1995년 20.6%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남편의 학대로 인한 아내들의 이혼청구율이 16.1%로서(이영숙·박경란·전귀연, 1999), 아내학대와 결혼불안정성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혼불안정성은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결혼을 해체하려는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경향(최연실, 1987; Booth & Edwards, 1983)으로서, 이혼이나 결혼해체 등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이들 개념이 반드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도 폭력은 여성들이 보고하는 결혼해체의 주요 이유이며(Kalmuss & Seltzer, 1986; Kurz,

1996), 여성들이 이혼을 고려하는 중요한 예측요인은 파트너들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경험이다(Katz, Arias, Beach, Brody, & Roman,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Johnson과 Ferraro(2000)는 1990년대까지 발표된 가정폭력 문헌을 고찰한 결과 신체적 폭력과 결혼의 질의 관계가 가정되기는 하였으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또한 부부들이 신체적 폭력 때문에 부부상담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부부관계에 학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참고 견디는 부부들이 많으며, 따라서 폭력이 결혼생활의 질을 감소시키고 결혼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지의 여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내학대 혹은 부부폭력이 결혼해체나 결혼불안정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60% 정도가 이혼을 생각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며, 매우 심한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의 41.3%가 남편과 계속 살겠다고 응답하였다는 조사 결과(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허남순, 1993)가 있고, 또 컴퓨터에 있는 여성들도 이혼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지만 동시에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인다(김지영, 1995)는 보고가 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이 남편들로부터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를 당하더라도 별거나 이혼 등의 방법을 선택하기 보다 가정에 머무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정이 해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하면서도 결혼관계에 남아있는 여성들의 결혼불안정성이 어떠한 요인들과 관련되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외국의 경우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은 어떠한 변인과 관련되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은 학대의 정도 그 자체와 연관될 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및 관계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직업이나 소득, 경제적 의존도 같은 개인적 자원 변인(DeMaris, 2000; Rusbult & Martz, 1995), 어린 자녀의 존재와 자녀수(Gelles, 1976), 그리고 우울감이나 성역할 태도와 같은 개인심리적 변인(텔 마틴, 1992; Trunninger, 1971)에 따라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해체 성향이 달라진다고 연구되어 왔다. 관계적 변인은 사회교환이론의 주요 개념인 비교수준과 비교대안수준을 부부관계에 응용한 결혼비교수준과 결혼대안 수준 및 결혼해체 장애(윤경자 & Schumm, 1993; Rusbult & Martz, 1995)가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가정되거나 경험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와 결혼불안정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김정옥·전형미·이현혜, 1992, 김수연·김득성, 2001)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며, 더욱이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대표적 형태인 아내학대가 결혼불안정성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지금까지의 가정과 실태조사 보고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내들의 개인적 및 관계적 변인에 따라 결혼불안정성은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으며, 관련변인들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학대를 경험한 아내들의 결혼의 질이 학대 뿐 아니라 그 밖의 어떤 변인들과 연관이 있고 또 어떤 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지에 관하여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 특히 학대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내학대와 결혼불안정성의 개념

1) 아내학대의 개념

아내학대의 개념은 폭력이나 구타 등의 용어와 별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은 신체적 및 물리적 공격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구타는 심한 신체적 공격행위를 나타내는 한편, 학대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및 비신체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따라서 아내학대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 행위 뿐 아니라 비신체적·심리적 학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페미니스트 학자들(Kurz, 1993; Pence & Paymar, 1993)은 여성 파트너들에 대한 남성들의 학대는 신체적 폭력의 형태 뿐 아니라 언어적, 성적, 심리적, 정서적 및 경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이와 같은 비신체적 학대의 모든 형태를 통틀어 심리적 학대라고 명명하였다.

아내학대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김정옥·유배희, 1997; 손정영·유영주, 1998; 정혜정, 1999; Johnson, 1995)을 보면 심리적 학대가 신체적 폭력과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고,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적 학대도 학대받는 아내들의 심리적 안녕과 결혼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Hamby와 Sugarman(1999)도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Straus와 Sweet(1992)은 심리적·언어적 공격의 영향은 신체적 폭력만큼 해롭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내학대의 연구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심리적 학대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결혼불안정성의 개념

결혼불안정성은 결혼안정성과 동일한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결혼해체, 이혼, 낮은 결혼의 질 등의 개념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혼이나 별거만을 결혼불안정성의 지표로 하

는 것은 그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불안정성은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 결혼해체의 상태에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결혼을 해체하려는 정서적, 행동적 및 인지적 성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연실, 1987; Booth & Edwards, 1985).

결혼불안정성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많은 기여를 한 이론은 사회교환이론(Thibaut & Kelly, 1959)이며, 특히 비교수준과 비교대안수준의 개념은 결혼관계, 특히 결혼안정성 연구의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비교수준은 어떤 주어진 관계에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만큼 보상과 비용을 받고 있는가를 평가해보는 기준이며, 비교대안수준은 현재 상황이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대안적 상황에서 얻어질 결과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이를 통해 자신의 관계를 유지시킬 것인가 중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Nye, 1979).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한 개인의 결혼관계가 자신의 비교수준이나 비교대안수준보다 낮은 결과를 가져올 때, 그는 자신의 결혼관계를 지속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윤경자 & Schumm, 1993).

Levinger(1965)가 결혼해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발전시킨 개념인 결혼해체 장애와 결혼 대안의 개념도 사회교환이론의 개념들로 설명될 수 있다(Lewis & Spanier, 1979). 결혼대안은 현재 결혼관계 이외의 다른 가능한 관계에서 가능한 결과로서, 현재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로부터의 애정적 보상, 결혼해체에 제약이 되는 친족이나 사회관계의 부재, 종교적 신념의 거부 등을 들 수 있다. 결혼해체 장애는 부부관계의 해소에 대한 내적·외적 제약이나 방해로서, 내적 제약은 이혼에 반대하는 종교적 규정이나 부부간의 유대,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감 등이며, 외적 제약은 가족의 존속에 대한 사회의 규범적 기대나 압력,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불명예 의식, 법적·경제적 제약(Levinger, 1976, 최연실, 1987에서 재인용) 등을 들 수 있다.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결혼대안과 결혼해체 장애라는 변인들의 유용성은 국내외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입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Udry(1981)는 결혼 대안이 결혼만족도보

다 결혼해체를 더 잘 예측해 주는 요인이었음을 발견하였고, 최연실의 연구(1987)에서도 결혼안정성은 결혼대안에 의해 부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결혼해체 장애에 의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내학대와 결혼불안정성의 관계

아내학대와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하나는 아내학대가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며, 다른 하나는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연구들이다. 여기서는 전자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후자는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 관련 변인'이라는 다음의 표제 하에서 살펴본다.

아내학대와 결혼불안정성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파트너의 폭력은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주요 원인이었고(Kalmuss & Seltzer, 1986; Kurz, 1996), 또 신체적 학대 경험은 여성이 이혼을 고려하는 강력한 예측요인이었다(Katz, Arias, Beach, Brody, & Roman, 1995). DeMaris(2000)도 커플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5-7년 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인구학적 요인과 언어적 갈등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남성의 폭력은 관계해체의 위험을 증가시켰음을 발견하였다. Rogge와 Bradbury(1999)는 56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신체적 공격은 4년 후에 부부가 이혼이나 별거를 판별하는 주요한 요인이었음을 발견하였다. 결혼 초기에 있는 부부 72쌍을 대상으로 결혼불안정성이나 결혼해체와 관련된 요인들에 관해 연구한 Leonard와 Roberts(1998)도 부부폭력, 특히 아내들에 대한 남편들의 신체적 폭력은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내학대가 결혼불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 외국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폭력을 당한 아내들

의 결혼해체 성향에 관한 실태조사들(김지영,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허남순, 1993)이 일부 이루어져 왔고, 김정옥 등(1992)은 부부폭력이 결혼불안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최근 김수연과 김득성(2001)은 부부폭력이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불안정성을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요인임을 발견하였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심층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3.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 관련 요인

1) 개인적 변인

(1) 개인적 자원

학대받는 아내들의 경제적 자원은 결혼관계 해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만큼 폭력적인 관계를 떠나려 할 가능성이 컸던 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부족하고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폭력 관계에 머무르는 경향이 더 높았다(Bowker, 1993; Gelles, 1976; Kalmuss & Straus, 1982; Pagelow, 1984; Rusbult & Martz, 1995; Strube & Barbour, 1983). 또한 학대받는 아내들의 직업유무와 교육수준도 결혼불안정성과 연관되는데,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보면(Strube & Barbour, 1983), 직업을 갖지 않는 비율은 학대남편과 이혼하였거나 별거한 여성들 보다도 학대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여성들이 더 높았다. Gelles(1976)도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이 없는 아내들은 학대 남편을 떠날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하였고, DeMaris(2000)도 여성이 확실한 직업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높을수록 학대관계를 떠나서도 경제적으로 더 훌륭히 자립할 수 있고, 또 그 만큼 폭력적인 관계를 떠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이 매 맞는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결혼관계를 지속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영숙 등(1999)도 폭력을 당한 여성의 직업이나 학력 등 여성이 가진 자원은 가정생활의 불안정성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가정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자녀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의 존재 유무와 자녀수도 학대받는 아내들이 결혼해체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Truninger(1971)와 Gelles(1976)는 학대받는 아내들이 그 남편을 떠나지 않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이유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때리는 남편과 계속 같이 살려는 이유의 50% 이상이 자식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으로부터 닦치는 대로 두들겨 맞는 이상의 심한 폭력을 당한 여성이나 혹은 남편으로부터 한번이라도 폭력을 당한 여성 집단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정덕 등(이정덕·김경신·문혜숙·송현애·김일명, 1998)도 우리나라의 40-50대 여성들의 주된 이혼 가운데 하나가 남편의 폭행인데, 이는 여성들이 젊었을 때 남편의 학대를 참고 살다가 자녀들을 다 키운 뒤 굴욕적인 삶을 거부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설명하여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개인심리적 변인

학대받는 아내들이 특징적으로 보이는 우울감 및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부적응 현상은 학습된 무기력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고, 학대를 당하더라도 결국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고 그 관계에 머무르게 된다고 한다(Walker, 1979). Straus(1973)와 Truninger(1971)도 학대받는 아내들이 그 남편을 떠나지 않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아내들이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진 경우라고 하였다.

학대받는 아내들의 성역할 이데올로기나 가족주의의 가치관도 학대관계를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아내들이 때를 맞으면서도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여성상

과 '나 하나 참지 못해 가정을 깨면 자식들이 불쌍해 진다'는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들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는 결국 가족체계 유지에 대해 가부장적 체계가 여성에게 주는 압박감,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요구로 아내들이 학대관계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연구들(델 마틴, 1992; Gelles, 1976; Truninger, 1971)에서도 학대받는 아내들이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전통적인 가족개념이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여 성역할 태도와 가족가치관이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은 여러 개인적 변인들과 관련되지만, 선행연구들은 이 변인들은 종합적으로 다루었다기 보다 부분적으로만 다루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였다기 보다 실태조사에 국한하여 결론을 내린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경험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관계적 변인

일반 부부들의 결혼불안정성이 사회교환이론의 기본 개념들로 설명되어 왔듯이,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도 사회교환이론에서 도출된 개념들로 설명하고자 시도되어 왔다. Scanzoni(1972)는 학대받는 아내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대가가 보상보다 많다고 지각할 때 학대하는 남편을 떠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Herbert, Silver와 Ellard (1991)도 학대관계를 떠날 것인가의 여부는 보상과 대가 그리고 비교수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시행한 결과, 관계에 대한 긍정적 지각과 하향비교가 학대관계의 해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Rusbult와 Martz(1995)가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여 학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해체 혹은 관계 불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발전시켰다. 이 모델은 만족도, 대안관계의 질, 그리고 투자의 크기에 따라 학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에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해체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관계 만족은 비교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그 결과 관계 해체나 관계 불안정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는데, Rusbult와 Martz(1995)는 학대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학대받는 아내들의 비교수준이 높을수록 관계해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대한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Gelles, 1976; Snyder & Fruchtmann, 1981; Strube & Barbour, 1983, 1984)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대안관계의 질은 현재 결혼관계 이외의 대안관계가 유용하고 또 매력적인 정도로서, 대안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학대관계를 떠나려는 성향이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학대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러한 가정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Martz, 1990; Nielson, Endo, Ellington, 1992; Strube & Barbour, 1983, 1984), Rusbult와 Martz(1995)도 대안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학대관계를 떠나는 경향이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투자의 크기는 학대관계에 투입한 정서적, 시간적 및 물질적 자원의 수와 크기를 말하는데, Rusbult와 Martz(1995)의 연구결과 투자의 크기는 학대관계의 해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교환이론의 기본 개념인 비교수준이나 비교대안수준은 학대관계에 있는 부부들의 결혼불안정성 연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윤경자와 Schumm(1993)도 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결혼관계에서 그들의 결혼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안정된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비교수준이나 비교대안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학대를 받는 아내들이 그 결혼관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거나 자신의 결혼관계가 자신의 기대수준에 부합할 때 학대를 받더라도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불안정성도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명백한 모델은 발전되지 않았고 연구에 따라 사용하는 변

인이나 용어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교수준과 결혼대안, 결혼해체 장애가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 불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한 공통적인 변수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개념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비교수준은 윤경자와 Schumm(1995)의 정의에 따라 자신의 현재 결혼관계가 다른 관계나 이 때까지의 결혼관계에 비해서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의하며, 따라서 결혼관계에 국한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비교수준'으로 명명하고자 하였다. 결혼대안과 결혼해체 장애는 Levinger(1965)가 발전시킨 개념을 Udry(1981)가 결혼안정성을 설명하는데 적용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결혼대안은 사회교환이론의 주요 개념인 비교대안 수준을 결혼관계에 적용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현재 결혼관계 이외의 다른 대안적 선택을 할 경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결혼대안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결혼해체 후의 대안적 관계를 현재 결혼관계 보다 좋게 평가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혼해체 장애는 결혼관계 해체에 대한 내적 및 외적 제약이나 방해로 말하는데, 사회교환이론의 보상과 대가 개념을 결혼관계에 응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결혼관계에 보상은 없지만 결혼해체에 대한 장애가 존재하고 그 장애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 불만족스러운 관계일지라도 지속할 것이므로, 결혼해체 장애를 높게 지각할수록 현재의 결혼불안정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상의 변인들 외에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결혼불안정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인 결혼지속년수, 남편의 소득과 교육수준 및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김미숙·김명자, 1990; 최연실, 1987; Ono, 1998; South & Lloyd, 1995)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아내학대 경험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은 개인적

변인(개인적 자원, 자녀, 개인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 또는 관계가 있는가?

3)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은 관계적 변인(결혼비교수준, 결혼대안수준, 결혼해체 장애) 및 학대 정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4) 관련 변인들이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자료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소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해당 소재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가능한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선택한 후 교사들 및 대학 강사나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가능한 무선 표집방법으로 학생들을 선택하고, 그 학생들의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대상들이 질문에 응답한 후 질문지가 연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질문지를 개별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고 응답 후에는 질문지를 봉투에 넣고 바로 봉할 수 있도록 봉하는 부분에 양면테이프와 지시사항을 붙여 두었다.

총 50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446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질문지를 제외한 총 403부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아니라 학대받는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관련 변인들을 선택하였으므로 학대를 경험한 아내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및 신체적 아내학대를 측정하는 19문항을 모두 합산하여 0이 나온 경우(97명, 24.7%)는 지난 3년 간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심리적 및 신체적

학대도 당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적어도 한번 이상 어떤 유형의 학대라도 당한 것으로 나타난 306명을 최종분석자료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평균연령은 39.58세(SD=6.99)이며, 30대가 43.8%(13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약 45%이며, 20대는 10.8%(33명)로 나타났다. 평균 교육수준은 11.62년(SD=3.22)이었는데, 그 분포를 보면 고졸이 51.8%인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상이 22.1%인 66명이었으며 초등졸 이하도 33명(11%)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가 140명(46.1%)이고 전업주부인 경우가 164명(53.9%)으로 비슷하였다.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 50만원 이하가 32명(24.6%), 51-100만원이 68명(52.3%), 101만원 이상이 30명(23.1%)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 월 평균 총소득은 217.71만원이었는데, 그 분포를 보면 101-200만원이 약 절반인 144명(50.3%)이었고 100만원 이하도 16.1%(46명)나 되었으며 301만원 이상은 37명(12.9%)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결혼기간은 15.08년(SD=7.38)으로 결혼기간이 11-20년이라는 응답자가 146명(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하가 94명(30.7%)이고 21년 이상이 66명(21.6%)이었으며, 평균 자녀수는 2.41명(SD=.93)으로 자녀가 2명이라는 응답자가 150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4명 이상인 경우도 약 10%인 31명이었으며, 3명인 경우는 89명(29.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막내자녀의 나이는 6-10세 (85명, 27.9%)와 5세 이하 (84명, 27.5%)가 비슷한 분포를 이루었으며 11-15세는 48명이었고 16세 이상도 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자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교육수준은 고졸(127명, 43.2%)과 대졸(102명, 34.7%) 순으로 많았으며 중졸 이하도 47명(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은 전문행정 관리직이 47명(15.6%), 사무직이(11.3%)이며, 판매 서비스직이 75명(24.9%)이고, 농수산업에 포함한 생산·단순직이 135명(44.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이 많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아내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남편이 직업이 없는 경

우는 11명(3.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편의 평균소득은 177.96만원(SD=121.91)으로 100-200만원이 138명(48.3%)으로 가장 많았고, 201-300만원은 42명(14.7%)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의 구성

(1) 아내학대 척도

아내학대는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의 갈등대처유형 척도(CTS2)를 우리나라에서 타당성을 연구한 손정영(1997)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적 학대 11문항과 심리적 학대 8문항의 총 19문항을 지난 3년 간 경험하였는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경험하였을 경우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가를 5점 척도에 의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심리적 학대는 Cronbach's $\alpha=.90$ 이었고, 신체적 학대는 $\alpha=.96$ 이었다. 성적 학대에 관한 4문항도 측정하였으나, 탐색적 분석 결과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내들은 모두 심리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결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만 초점을 두기로 하였다.

(2) 결혼 불안정성

결혼불안정성은 Booth와 Edwards(1983)가 개발한 결혼불안정성 척도를 참고하여 최연실(1987)이 작성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는가 하는 정서적·인지적 평가에서부터 실제 이혼이나 별거 제안 등 행동적 측면까지 포함하며, 총 9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결혼불안정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었다.

(3) 개인적 변인

우선 개인적 자원은 수입, 직업, 교육수준 및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적 의존도를 측정하였다. 경제적 의존도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도와 남편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능력에 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의존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개인심리적 변인인 자존감은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 중 7문항, 우울감은 Ulbrich(1988)의 우울감 척도인 CES-D의 10문항이며, 각 척도는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과 자존감 각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사 결과 자존감은 Cronbach's $\alpha=.72$, 우울감은 $\alpha=.90$ 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는 김경신·박옥임·정혜정(1999)이 구성한 6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도록 점수화하였다. 가족가치관은 김경신(1998)이 구성한 6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역할 태도의 신뢰도는 $\alpha=.75$ 이고 가족가치관은 $\alpha=.76$ 로 나타났다.

(4) 관계적 변인

결혼비교수준은 윤경자와 Schumm(1993)이 개발한 결혼관계에서의 비교수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결혼관계가 다른 관계나 이 때까지의 결혼관계에 비해서 어떠한가를 묻는 5점 Likert식 척도의 6개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결혼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나타내는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결혼대안수준 척도는 Levinger(1976)의 연구와 Udry(1981)의 결혼대안척도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최연실(198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다면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즉 심리적 극복이나 재혼가능성 등을 묻는 10문항들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대안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는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5$ 이었다.

결혼해체 장애는 Levinger(1976)의 연구와 Sabatelli와 Cecil-Pigo(1985)의 연구를 참고로 한 최연실(1987)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징적, 물질적, 정서적 장애에 관한 10문항의 5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해체 장애를 높게 지각함을 나타낸다. 결혼해체 장애의 Cronbach's $\alpha=.77$ 이었다.

IV. 연구결과

1. 아내학대 경험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차이 분석 결과

우선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아내학대 경험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각 문항별 학대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어떠한 형태의 학대라도 지난 3년간 1회 이상 경험한 아내들이며, 문항별 경험 여부에 따라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를 나타내는 각 문항의 학대를 한번이라도 경험한 집단과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집단을 분리하여 결혼불안정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t-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의 각 내용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결혼불안정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경미한 신체적 폭력은 물론 언어적 공격을 포함한 심리적 학대의 경험여부도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차이를 가져옴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항별 경험여부에 따른 결혼불안정성 수준을 보면, 심리적 학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소유물을 부순' 경험이 있다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이 가장 높았고(M=3.04, SD=.69), 신체적 학대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흥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M=3.10, SD=.70)이 가장 높았다. 결혼불안정성 전체 평균은 2.24(SD=.75)로서 중간점인 3점보다 다소 낮아, 본 연구대상의 결혼불안정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로 심리적 학대만을 경험한 집단과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을 함께 경험한 집단을 구분하여 이 두 집단 간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306명 가운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은 없으나 심리적 학대만을 경험한 아내들은 133명(43.3%)이고,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은 172명으로 나타났는데(한편 심리적 학대는 없고 신체적 학대만 경험하였다는 아내는

〈표 1〉 아내학대 각 문항별 경험유무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차이

학대 유형	학대 내용	경험 없음		경험 있음		t 값
		n	M (SD)	n	M (SD)	
심리적 학대	•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함.	79	1.82 (.47)	226	2.83 (.78)	- 6.08***
	• 뚱뚱하다거나 못생겼다고 말함.	211	2.16 (.70)	94	2.40 (.85)	- 2.54*
	• 고함이나 소리를 지름.	63	1.86 (.50)	242	2.33 (.78)	- 4.56***
	• 화가 나서 발, 문을 세게 닫음.	100	1.92 (.58)	205	2.39 (.79)	- 5.41***
	•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함.	232	2.04 (.62)	73	2.87 (.79)	- 9.35***
	• 악의에 찬 말을 함.	164	1.85 (.48)	141	2.68 (.77)	-11.40***
	• 때리거나 물건 던지겠다고 함.	218	1.96 (.54)	87	2.93 (.79)	-12.27***
	• 내 소유물을 부숨	242	2.02 (.62)	63	3.04 (.69)	-11.26***
신체적 폭력	•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 던짐.	194	1.95 (.56)	111	2.74 (.79)	-10.16***
	• 팔을 비틀, 머리카락 당김.	222	1.98 (.55)	83	2.93 (.80)	-11.79***
	• 밀었음	188	1.92 (.53)	117	2.74 (.80)	-10.77***
	•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찰	230	2.01 (.59)	75	2.95 (.78)	-11.01***
	• 벽쪽으로 세계 밀어부침.	209	1.97 (.55)	96	2.82 (.83)	-10.54***
	• 손으로 몸을 때림.	200	1.97 (.55)	105	2.75 (.83)	- 9.73***
	• 꺾 움켜 잡음.	198	1.96 (.56)	107	2.76 (.80)	-10.16***
	• 뺨을 때림	215	1.98 (.55)	90	2.84 (.82)	-10.95***
	• 발로 찌름.	229	1.99 (.58)	76	2.96 (.77)	-11.50***
	• 목을 조름.	252	2.08 (.68)	53	2.97 (.67)	- 8.66***
	• 흉기 사용함.	266	2.11 (.68)	39	3.10 (.70)	- 8.48***

* p<.05 *** p<.001

한명도 없었음). 이 두 집단 간 결혼불안정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2 참조). 즉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을 동시에 경험한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 평균이 신체적 폭력은 경험하지 않고 심리적 학대만을 경험한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 평균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학대도 신체적 학대만큼 결혼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적 학대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국의 선행연구들 (Hamby & Sugarman, 1999; Straus & Sweet,

1992)과 차이가 있는 결과로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앞으로 이에 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개인적 변인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차이 또는 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개인적 변인들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고, 결혼불안정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아내의 교육수준과 소득, 그리고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생략). 그러나 직업유무, 자녀수,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직업이 있는 아내들이 전업주부인 아내들보다, 자녀가 4명 이상인 아내들이 3명 이하 보다, 그리고 남편이 무직인 집단의 결혼불안정성이 더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이정덕 등,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

〈표 2〉 학대 유형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차이

	n	M(SD)	t 값
심리적 학대만 경험한 집단	133	1.82(.47)	-9.70***
심리적 및 신체적 학대 모두 경험한 집단	172	2.56(.78)	
총	306	2.24(.75)	

*** p<.001

〈표 3〉 개인적 변인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변수	집 단	평균 (SD)/D
아내 직업	있음	2.35 (.81)
	없음	2.14 (.70)
	t 값	-2.42*
자녀수	1명	2.55 (.83) a
	2명	2.29 (.74) a
	3명	2.16 (.79) a
	4명 이상	1.87 (.45) b
	F 값	5.15**
남편 직업	전문·행정관리직	2.12 (.69) a
	사무직	2.21 (.82) a
	판매·서비스직	2.18 (.71) a
	생산·단순직	2.26 (.74) a
	무직	3.05 (1.03) b
	F 값	3.68**

* p<.05 ** p<.01 *** p<.001

원, 1992)에서 어린 자녀의 존재나 자녀수가 학대 남편과 함께 살려는 이유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라서만 결혼불안정성에 차이가 있어서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아내의 직업유무에 따른 본 연구결과는 직업이 있는 경우 학대관계를 떠나서도 자립할 능력이 있으므로 학대관계를 떠나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선행연구(DeMaris, 2000)와 일치한다.

아내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적 의존도는 결혼불안정성과 $r = -.35$ 의 상관을 보여(표 4)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고 지각할수록 결혼해체의 성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존감과 가족가치관은 결혼불안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감 및 성역할 태도는 결혼불안정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개인적 변인 가운데 결혼불안정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경제적 의존이었고, 자존감과 성역할 태도는 결혼불안정과 $r = .20$ 이하의 미약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계를 통해 이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결과들(한국여성개발원,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이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이 있음을 실

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기타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연관될 것이라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남편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가정의 월평균 소득, 그리고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들 변인 모두에 따라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관계적 및 학대 변인과 결혼불안정성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관계적 변인과 결혼불안정성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표 4),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은 모든 관계적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즉 결혼비교수준은 결혼불안정성과 비교적 높은 상관인 $r = -.66$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해체 장애도 $r = -.45$ 로 중간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결혼대안수준과의 상관인 $r = .21$ 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교환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이 세 변인들이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해체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Rusbult와 Martz(1995)가 발전시킨 모델 및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윤경자와 Schumm(1993)의 시각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심리적 및 신체적 학대와 결혼불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인 $r =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간에는 $r = .88$ 이라는 매우 높은 상관계수가 산출되었는데, 이는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4.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탐색하였다. 일차적으로 분석에 투입된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신

〈표 4〉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경제적 의존도	자존감	우울감	성역할 태도	가족 가치관	결혼 비교	결혼 대안	결혼해 체장애	심리적 학대	신체적 폭력
개인 변인	경제적 의존도	1.00									
	자존감	-.18*	1.00								
	우울감	.08	-.45*	1.00							
	성역할 태도	-.32*	.17*	.02	1.00						
	가족가치관	.25*	-.13*	-.01	-.60*	1.00					
관계 변인	결혼비교수준	.25*	.27*	-.35*	-.14*	.22*	1.00				
	결혼대안수준	-.22*	.13*	.03	.18*	-.14*	-.07	1.00			
	결혼해체 장애	.38*	.01	-.14*	-.40*	.49*	.41*	-.05	1.00		
학대 변인	심리적 학대	-.25*	-.18*	.28*	.06	-.11	-.52*	.10	-.30*	1.00	
	신체적 폭력	-.22*	-.16*	.23*	.04	-.13*	-.49*	.09	-.30*	.88*	1.00
결혼불안정성		-.35*	-.12*	.32*	.16*	-.28*	-.66*	.21*	-.45*	.61*	.60*
M		3.39	3.33	2.64	3.44	2.62	2.88	2.69	2.69	.93	.54
SD		1.04	.60	.84	.73	.79	.85	.29	.52	.94	.86

* p<.05

체적 폭력과 심리적 학대의 상관계수가 $r=.88$ 로 매우 높게 나왔고 이는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회귀분석에는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폭력을 모두 합하여 '전체 학대'로 명명하여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여부는 또한 회귀분석에 투입된 각 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 VIF 값이 10 이하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강병서, 1999).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의 VIF 값을 살펴본 결과 1.12~1.87의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자기회귀 현상의 존재를 살펴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이 계수가 2.01로 나타나 자기회귀 현상의 부재를 기본 가정으로 하는 중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들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중다 회귀분석은 일차적으로 개인적 변인만 투입하였고, 그 다음으로 관계적 변인과 학대 변인을 차례로 첨가하였다. 그 결과(표 5), 개인적 변인만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적 의존, 우울감, 가족가치관, 남편의 직업유무가 학대

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변인이 결혼불안정성을 설명하는 비율은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변인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경제적 의존이 결혼불안정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고 지각할수록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이 낮았다. 다음으로 개인적 변인에 관계적 변인을 첨가하여 분석하였을 때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설명력이 23%나 증가하여, 개인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이 결혼불안정성을 설명하는 비율이 5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및 신체적 학대를 첨가하였을 때 설명력이 8% 증가하였는데, 이는 개인적 및 관계적 변인이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도 남편으로부터의 심리적 및 신체적 학대가 결혼불안정성 변량을 8% 설명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인적, 관계적 및 학대 변인 모두가 결혼불안정성을 설명하는 비율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비교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이 전체 학대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를 경험한 아

<표 5> 결혼불안정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개인 변인	아내직업유무	-.09	-.06	-.14	-.10*	-.15	-.10*
	자녀수	-.06	-.08	-.03	-.04	-.03	-.04
	남편직업	-.48	-.12*	-.22	-.06	-.14	-.04
	경제적 의존	-.25	-.35***	-.14	-.20***	-.12	-.16***
	자존감	-.06	-.05	-.06	.05	-.08	.06
	우울감	.28	.31***	.14	.15	.11	.12**
	성역할 태도	-.10	-.10	-.11	-.11*	-.07	-.07
가족가치관	-.22	-.22***	-.08	-.08	-.08	-.08	
관계 변인	결혼비교수준			-.45	-.50***	-.33	-.37***
	결혼대안수준			.29	.11**	.25	.09*
	결혼해체 장애			-.20	-.14**	-.15	-.10*
전체 학대						.30	.33***
상 수		4.12		4.15		3.34	
F 값		16.00***		29.94***		37.60***	
R ² Change				.23		.08	
R ²		.30		.53		.61	
Durbin-Watson				2.01			

* p<.05 ** p<.01 *** p<.001 (가변수: 남편직업 있음=1, 없음=0; 아내직업 있음=0, 없음=1)

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이 심리적 및 신체적 학대 경험정도 보다도 다른 관계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현재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하는 결혼비교수준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하는 흥미로운 결과로 보여진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의존, 우울감, 직업유무, 결혼해체 장애요인, 결혼대안의 순으로 결혼불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으로 의존적일수록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은 낮았고, 직업이 있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이 직업이 없는 아내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해체에 대한 장애가 많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결혼해체에 대한 대안이 적다고 지각할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 경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개인적 및

관계적 변인에 따라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나 관계, 그리고 관련 변인들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3년 동안 심리적 및 신체적 학대를 한 번 이상이라도 경험한 아내들만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적 및 신체적 아내학대의 각 내용별 경험유무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대의 각 상황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았다는 집단보다 결혼불안정성이 더 높았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및 언어적 공격도 결혼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심리적 학대만 당한 아내 집단과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을 함께 당한 아내 집단의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신체적 폭력이 있는 집단의 결혼불안정성이 더 높았다. 이는 심리적 학대와 더불어 신체적 폭력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결혼불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 및 신체적 확대는 개인적 및 관계적 변인들이 결혼불안정성을 설명한 후에도 결혼불안정성을 8% 더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상담에서 제시된 일차적인 문제가 확대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간 갈등이나 불화라고 하더라도 부부간 확대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Johnson과 Ferraro(2000)의 주장과 같이, 부부상담에서는 관계적 요인 뿐 아니라 확대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확대하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신체적 폭력의 감소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심리적·언어적 공격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데도 초점을 둔다면 결혼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적 자원 변인 가운데 확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관련된 요인은 아내 자신과 남편의 소득, 혹은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라는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라기 보다 아내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적 의존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경제적 의존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며, 이는 결국 남편으로부터의 확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관계를 해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일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인 남편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은 확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의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 관련 변인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선행연구들에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의 존재는 결혼해체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막내 자녀의 연령은 결혼불안정성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다만 자녀가 4명 이상인 집단이 3명 이하인 집단보다 결혼불안정성이 더 낮게 나타나, 막내자녀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자녀가 많을수록 확대를 당하더라도 부부관계를 해체하려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는 성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녀의 존재가 확대받는 아내들 뿐

아니라 여성들이 결혼을 지속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억제 원천으로서 작용하므로 자녀의 존재는 이혼 고려시 결혼해체를 방해하는 장애요소임이 밝힌 국내의 선행연구(윤현봉, 1985)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이 결과는 평균자녀수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인구동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아내 확대는 결혼불안정성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확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연관될 것이라고 가정된 개인 심리적 변인들은 모두 결혼불안정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들을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특히 성역할 태도 및 자존감 보다 우울감 및 가족가치관이 결혼불안정성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관련 변인들을 모두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우울감은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개인 심리적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감이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확대받는 아내들은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결혼관계를 해체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확대받는 아내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에서는 확대 자체의 감소와 아울러 우울감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결혼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관계적 변인은 사회교환이론의 기본 개념들을 응용한 결혼비교수준, 결혼대안수준, 그리고 결혼해체에 대한 장애의 세 변인으로서, 분석 결과 이 세 변인 모두 확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결혼비교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즉 확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비교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관계 해체에 대한 장애를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낮았던 반면, 현재 결혼관계 해체 후의 대안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교환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세 가지 변인들이 확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임을 입증하

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는 아내학대가 결혼 불안정성과 당연히 연관된다는 일반적인 가정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학대받는 아내들만을 대상으로 결혼불안정성과 연관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 연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학대 경험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은 학대 그 자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대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발생하는가를 일차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 및 개인심리적 변인, 그리고 관계적 변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을 보다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중소도시와 읍면 단위 거주자에 국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사대상자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반 가정의 학대받는 아내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는 상담소나 복지기관 혹은 쉼터 등을 이용하는 비교적 높은 정도의 학대를 당하는 아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는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내들까지 포함함으로써 학대 경험 유무나 학대 유형에 따라 결혼불안정성을 설명하는 변인들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학대를 경험한 아내들의 결혼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더욱 구체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련변인들이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만을 분석하였으나, 변수

들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어떤 변인은 다른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Udry(1981)는 결혼 대안이 자신의 자원과는 정적 상관, 그리고 배우자의 자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고 하여, 개인적 자원이 결혼대안 수준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접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력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학대받는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실제 복지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병서(1999).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무역경영사.
-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43-65.
- 김경신, 박옥임, 정혜정(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13-239.
- 김광일(1988).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 김미숙, 김명자(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1-183.
- 김수연, 김득성(2001).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53-62.
- 김정옥, 류배희(1997).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205-220.
- 김정옥, 전형미, 이현혜(1992).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 및 결합력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연구, 20, 21-42.
- 김지영(1995). 학대받는 아내를 위한 사회복지 관련

- 기관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 델 마틴 지음, 정세웅 옮김(1992). *매맞는 여자들*. 서울: 한국문연.
- 손정영(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 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 -남편의 갈등대처 유형 및 아내 학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51-87.
- 손정영, 유영주(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6(12), 145-160.
- 윤경자, Schumm, W. R.(1993).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결혼관계에서의 비교수준과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의 측정: 비교수준 척도와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 척도의 개발. *대안가정학회지*, 31(4), 133-140.
- 윤현봉(1985). 부부간의 권력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 이정덕, 김경신, 문혜숙, 송현애, 김일명(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복희(1993). 아내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서영(1995). 부부간의 심리적·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감. *숙대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1999). 아내학대에 대한 적응의 영향 변인. *대안가정학회지*, 37(10), 107-122.
- 중앙일보. 2002. 2. 2.
- 최규련(1996). 한국에서의 부부간 폭력에 대한 대책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103-130.
- 최연실(198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93). *한국의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저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 사회복지연구소 편, 비교사회복지*, 2, 277-320.
- Booth, A. & Edwards, J.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387-393.
- Bowker, L. H. (1993). *Beating wife beating*. Lexington, MA: Lexington Book.
- DeMaris, A. (2000). Till discord do us part: The role of physical and verbal conflict in union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683-692.
- Ferraro, K. J. & Johnson, J. M. (1983). How women experience battering: *The process of victimization*. *Social Problems*, 30, 325-339.
- Gelles, R. (1976). Abused Wives: Why do they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59-668.
- Hamby, S. L. & Sugarman, D. B. (1999). Acts of psychological aggression against a partner and their relation to physical assault and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959-970.
- Herbert, T. B., Silver, R. C., & Ellard, J. H. (1991). Coping with an abusive relationship: I. How and why do women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2), 311-325.
- Johnson, M. P. & Ferraro, K. J. (2000). Research on domestic violence in the 1990s: Making distin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948-963.
- Kalmuss, D. & Seltzer, J. A. (1986). Continuity of marital behavior in remarriage: The case of spouse ab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113-120.
- Katz, J., Arias, I., Beach, S. R. H., Brody, G., & Roman, P. (1995). Excuses, excuses: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partner violence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Violence and victims*, 10, 315-316.
- Kurz, D. (1993). Physical assaults by husbands: A major social problem. In R. Gelles & D. Loseke (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 Newbury Park, CA: Sage.
- _____. (1996). Separation, divorce, and woman abuse. *Violence Against Women, 2*, 63-81.
- Leonard, K. E. & Roberts, L. J. (1998). Marital aggression, quality, and stability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Finding from the Buffalo newlywed study. In T. N. Bradbury (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ger, G. (1965). Marital cohesiveness and dissolution: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7*, 32-33.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Free Press.
- Nye, F. I. (1979).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2*. NY: Free Press.
- Ono (1998). Husbands' and wives' resources and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674-689.
- Pagelow, M. (1981). *Women beating: Victims and their experiences*. Beverly Hills, CA: Sage.
- Pence, E. & Payman, M. (1993). *Education groups for men who batter*. NY: Springer.
- Rogge, R. D. & Bradbury, T. N. (1999). Till violence does us part: The differing roles of communication and aggression in predicting adverse marital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3), 340-351.
- Rusbult, C. E. & Martz, J. M. (1995) Remaining in an abusive relationship: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of nonvoluntary depen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21*, 558-571.
- South, S. J. & Lloyd, K. M. (1995). Spousal alternatives and marital dis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21-35.
- Straus, M. A., Hamby, S. L., McCoy, S. B.,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aus, M. A. & Sweet, S. (1992).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46-357.
- Strube, M. J. & Barbour, L. S. (1983). The decision to leave an abusive relationship: Economic dependence and psychological commi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785-793.
- Thibaut, J. W., & Kelley, H. H. (1959). *The social psychology of groups*. NY: Wiley.
- Trunninger, E. (1971). Marital vilence: The legal solutions. *Hastings Law Review, 23*, 259-276.
- Udry, J. R. (1981). Marital alternatives and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889-897.
- Udry, J. R. (1983). The marital happiness/disruption relationship by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221-222.